

CBS TV 2018년 봄 개편 실시

“더욱 쉬워진 성경공부, 활력 있는 찬양·토크쇼 신설과
크리스천 생활리듬에 맞춘 편성시간 조정”

CBS는 2018년 봄 개편을 실시했다. 신앙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교육·애니메이션·토크쇼 등 활기찬 봄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또한 크리스천의 하루를 활력 있게 여는 찬양 프로그램 신설과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오전 시간대 편성 조정으로 더욱 편리한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CBS TV에 찬양예배가 다시 시작된다. 오륜교회와 분당 만나교회 등 다양한 교회와 선교 단체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진행되는 <주님께 맡기는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길 바라는 시청자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마련됐다.

(본방) 월-금 오전 7시

(재방) 화-토 밤 1시 10분

어린이를 위한 국내창작 성서 애니메이션 <히즈쇼 바이블>

캐릭터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서 애니메이션 <히즈쇼 바이블>이 어린이와 크

리스천 부모들에게 찾아간다. <히즈쇼 바이블>은 한 편당 25분씩 총 2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성경 흐름에 맞춰 구성했다.

성경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한 <히즈쇼 바이블>은 주일학교, 교회 유치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어린이 교육과 전도의 훌륭한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방) 토요일 오전 8시 40분

(재방) 주일 오후 4시

진재혁 목사와 함께 하는 힐링 타임 ‘향기로운 수요일’ <진재혁 목사의 향수>

한 주의 중반 수요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영성과 풍부한 감성으로 치유와 쉼을 선사하는 지구촌교회 수요일예배 실황 <진재혁 목사의 향수>가 새롭게 선보인다.

감성 있는 설교자 진재혁 목사의 향기로운 메시지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치유의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본방) 수요일 오전 10시

(재방) 목요일 오후 1시 20분

성경의 진수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기초 성경공부 프로그램 <CBS 성서학당 베이직>

기독교 입문층과 성경의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청자를 위해 <CBS 성서학당 베이직>이 새롭게 선보인다.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를 표방하며 시작한 <CBS 성서학당>은 24명의 강사가 성경 66권 중 48권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2500여 개의 강의가 쌓이는

동안 성경공부를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시청자들의 요구가 많아졌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 입문층’을 위한 성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CBS 성서학당 베이직>이 마련됐다.

(본방) 목-금 오전 8시 20분

(재방) 목-금 오후 9시



싸싸~ 싸이판이 시즌2, TV로 돌아온다



‘믿고 듣는 방송 CBS가 야심 차게 선보인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작한 ‘변상욱의 싸이판-싸이비가 판치는 세상’이 시즌 1을 종료한 지 1년만에 2018년 5월 시즌2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 시즌 2는 팟캐스트 뿐만 아니라 CBS TV를 통해서도 방송할 예정이다. 시즌2에는 TV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좀 더 많은 크리스천에게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상욱의 싸이판’은 지난

해 2월 3일 1편 [싸이비 국정 농단사건]을 시작으로 아이튠즈 팟캐스트와 레인보우 팟캐스트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천지를 포함한 한국사회 이단사이비의 문제점을 고발

하는 프로그램이 쉽고 편하게 젊은 층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 크리스천을 위한 CBS 콘텐츠의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적절하게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해 단순한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벗어난 점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다양한 청취자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한 점이 새로운 접근이라는 평이다. 그 결과 제9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에서 ‘변상욱의 싸이판’은 기독교 언론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꿈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전략을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해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사이비 집단의 국정농단 사례를 폭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님 나라의 영원한 현역 ‘김완수 전도사’

“내가 나가서 전도 못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는 것을 CBS가 대신해 주니, CBS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CBS가 있어서 항상 감사해요!”

봄꽃이 흠날리던 어느 날~ 찾아뵈는 방송선교사!
96세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한 영혼 구원사역을 위해 10년째 방송선교를 지속하고 계신 김완수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잊지 못할 한 마디, “나 삼식이여~”

“나 삼식이여~”라는 말로 선교협력부 모두의 기억 속에 각인된 김삼식 후원자. 아직까지도 김삼식이라는 이름이 본명인지 가명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름만큼 인상 깊었던 그 분과의 첫 만남을 회상해본다.

지금 파주에서 출발해 CBS로 가는 중이라며 갑작스런 전화를 주신 삼식님. 어딘지 모르게 말투도 부자연스러웠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후원자를 기다리는 것은 선교협력부의 작은 사명이기에 직원들 모두 점심도 거른 채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마침 삼식님을 모시고 오던 택시 기사한테 전화가 왔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저희 CBS는 목동 오목교역 쪽인데 지금 어디신가요?”

“네?! 지금 노랑진인데요? 이 손님이 여기 기독교방송 가자고 그러시던데...”

타방송국 직행택시를 타신 삼식님. 상세하게 위치 설명까지 드렸지만 찾아오기가 쉽지 않으셨던 지 택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고 하시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으셨다. 그렇게 허탈감과 쓰라린 상처만을 남겨주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드디어 뵈게 된 후원자님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뜬 얼굴과 힘찬 일을 하시는지 투박해 보이는 손이 눈에 띄었다.

“오천원이야!”라며 다짜고짜 낚은 봉투를 꺼내신 삼식님. 그 분의 모습으로 보아 후원금이 많지 않을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분명히 봉투는 금액에 비해 이상하리만치 두툼했음에도 말이다. 여러 가지를 물어도 본인의 얘기를 일절하지 않고 농담조로만 일관 하시던 후원자는 계속 돈을 맞게 가져왔나 세어보라고 재촉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고액의 후원금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걸음만 보고 판단했던 마음이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스러워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는 그 분의 빨갛고 투박한 손이 눈에 들어와 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물론 응대하는 내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간 눈에 보이는 만큼 응대한 것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저 위에 나라에 가면 다시 받게 되.”라는 말씀을 하신 삼식님은 폐품을 주우시며 힘들게 번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그리고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시며 마치 오천원처럼 내 놓으신 것이다.

부끄러운 생각을 한 마음이 들킬까봐 ‘제대로 대접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하며 삼식님을 배웅해드렸다.

“왜 대접을 못해. 주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눴잖아.”라는 말로 또 한 번 고개를 떨구게 하신 삼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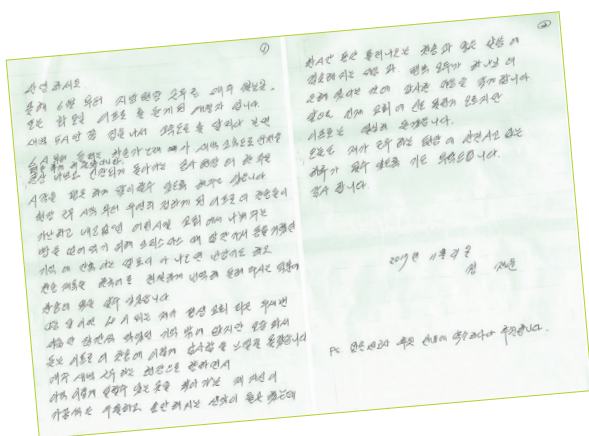
그 분이 가시고 나서 많은 생각이 밀려들었다. ‘만약 그 분이 진짜로 5천원을 가져오셨다면? 그랬다면 그 분의 후원금이 과연 이토록 반가웠을까?’

후원금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액에 신경 쓸 수 밖에 없지만 5천만원 같은 5천원에, 1억원 같은 십만원

에도 여전히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후원자들을 기도하며 섬겨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후원자 삼식님을 통해 무뎠어지고 있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물 받았다.



세상 속 축복의 통로 CBS



CBS 라디오 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의 진행자 정민 아나운서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

다. 매일 아침 6시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와 후원금이 배달된 것.

이른 새벽부터 어둠을 뚫고 공사현장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60대 남성의 애청자는 사실 ‘논크리스천’이다.

믿지 않는 영혼이지만, 우연히 접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통해 기세소리로 떠들썩한 공사장에서 평온

함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가난한 어린 시절 빵을 먹기 위해 찾아간 교회에서 흥얼거렸던 찬양을 다시 들을 때는 마음의 위로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레 쓴 편지였다.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는 일하며 모은 후원금을 손 편지와 함께 보내

며 방송사역에 동참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것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비롯한 CBS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 앞으로도 CBS가 찬양과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믿는다.

CBS 선교후원안내

후원계좌 / 예금주 : (재)CBS

국민 802-25-0009-268

농협 358-17-000404

ARS 060-808-5004

(한 통화 5천원)

후원 홈페이지 love.cbs.co.kr

정기후원 문의 02-2650-7004

(월 1만원 정기후원)

“다음세대를 생각합니다”

- CBS 다음세움 선포식 & 암송성경 1189 테마관 오픈 -

한국교회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CBS의 꾸준한 다음세대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가 교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CBS는 2년 전인 2016년부터 다양하고 독창적인 교회학교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 탐방기획 <신나는 교회학교>를 제작 방영해 교회학교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을 개최해 한국교회에 성경암송 열풍을 몰고 온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CBS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음세대 10,900명이 성경 전체를 외운 <암송성경 1189>를 제작해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크로이츠 교회에 봉헌한 데 이어 2018년 CBS연중캠페인을 ‘다음세대를 생각합니다’라고 정하고, 이 땅의 희망인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다음+세움’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1월 CBS 1층 로비에서는 암송성경에 참여한 약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성경 1,189장을 다음세대 어린이들의 입으로 암송해서 만든 <암송성경1189 테마관>이 뜨거운 축하와 함께 개관한 것이다. 테마관은 26개의 다양한 프레임이 모여서 의자를 형상화 하고 있는 구조이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표



<암송성경 1189> 테마관 오픈식

현했다. 성경 66권을 암송한 <암송성경 1189>가 완성되기까지 7,000시간의 제작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케냐, 독일, 캄보디아, 이스라엘, 레바논, 미국, 이집트, 호주, 터키, 몽골 등 23개 국가의 참가자 영상.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해 설명한 코멘터리, 암송성경 홍보영상과 뉴스소식 등 10개의 모니터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디지털 기법으로 표현했다.

이어진 감사예배에서는 <암송성경 1189> 제작 참여교회와 각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마관 개관과 CBS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설교를 맡은 장경동 목사는 아내와 연애시절에 성경암송 배틀을 하며 데이트를 한 이야기와 함께 성경암송의 중요성을 전하고, 한국 교회에 다음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CBS가 다음세움을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들고, 한국 교회가 CBS와 함께 건강한 부흥을 이루기를 소원했다. CBS

다음세움 선서문에는 모자가정과 부녀가정이 함께 낭독하며 한국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과제는 오직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임을 선서했다. [2]

암송성경 1189 테마관

장소: CBS 본사 1층 로비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기간: 연중 무휴(무료 관람)

문의: 02-2650-7931(CBS 선교국)

다음세대 영혼에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라 - 한국 교회를 살리는 성경암송 열풍

7,000시간의 대장정을 거쳐 약 100시간의 리닝타임으로 완성된 암송성경 1189는 현재 CBS 본사 로비에 마련된 ‘암송성경 1189 테마관’을 통해 전시 중이다. 암송성경 1189가 독일 현지에서 봉헌된 지 1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CBS가 일으킨 암송열풍은 암송성경 1189 테마관을 통해 그 열기를 확인하고 있다.

2018년 1월 22일 암송성경 1189 테마

관 개관 이후 실제 암송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개가 넘는 교회와 단체가 테마관을 방문 해 세계 최초의 영상성경을 관람하면서 말씀 암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테마관을 방문한 온누리교회 ‘사이닝 키즈’는 (시편 109편 참여)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세우고자 힘써온 CBS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귀한 선물이었다. 초등학교

교 1~2학년으로 구성된 이들은 테마관 관람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전장을 테마관 앞에서 암송으로 선포함으로 CBS 직원들 뿐 아니라 CBS를 방문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또한 20여개국 이상이 참여한 글로벌 암송성경에 걸맞게 국내뿐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세계 최초의 영상성경인 암송성경 1189를 관람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

CBS는 현재 ‘다음세움’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음세대 사역에 힘쓰는 교회 및 공동체를 찾아가 소개하고 멘토들의 강연과 토크를 통해 다음세대의 걱정과 고민을 나누며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다음세대를 살리고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강좌 프로그램 ‘부모세움’을 방영 예정이며 전국 20여개 중·고등학교 내에 CBS만의 특화된 기독교 동아리 운영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선교의 발판 또한 마련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방송 CBS가 <다음+세움>을 통해 한국 교회의 미래이자 세계 교회의 심장부를 지킬 우리의 다음세대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함께 만들어 가는데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양재 온누리교회 사이닝 키즈>



<미안마 꿈나무 고아원>

콘텐츠로 CBS의 가치를 높이다

- CBS TV 고품격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 로드>와 <북간도의 십자가>

“누군가가 ‘종교개혁’을 물어보면 이 다큐를 보게 하라”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다시 쓰는 루터 로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던 2017년... 마르틴 루터가 촉발한 500년 전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외로 조용히 지나간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사이에서 굳게일하처럼 우뚝 섰던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었다. 바로 2017년 10월에 방송된 3부작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 로드>(연출 : 반태경, 박유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4명의 ‘종교개혁 원정대’가 독일 종교개혁 유적지를 순례하며 한국

교회의 오늘을 되짚어 봤던 실험적인 작품으로, 젊고 대중적인 루터 연구가 최주훈 목사(중앙루터교회 담임)가 원정대를 이끌었고, 신학을 전공한 싱어송라이터 제이미스톤즈, 기독교청년운동가 남기평(한국기독교청년회 총무/감리교 목사) 등이 순례에 함께 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출연자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종편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독다(독일 다니엘)’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모았던 그의 출연 소식에

<루터 로드>는 방송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지원작이기도 했던 이 다큐는 방송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역사/인물/학술(신학)/예능(여행) 등 방송의 모든 요소를 ‘퓨전’시킨 새로운 구성이 채널 밖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CBS 단일 프로그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작비를 투여하며 1년 반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또한 방송을 즈음해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빚었던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등 한국교회의 문제점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역시 CBS의 콘텐츠는 다르다”는 평가를 교계 내외부에서 받기도 했다.

<루터 로드>를 향한 외부의 호평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9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시상식에서 만장일치로 ‘기독교 문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

흥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에서도 ‘다양성 강화부문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지난 4월엔 2018 케이블 방송대상 교양/다큐 부문 대상작을 선보인 ‘강소(強小)’ 채널 CBS TV의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자리였다. [4]

있는 녀석들’ 등 거대 MPP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2017년 <순종>에 이어 2년 연속 케이블 방송대상 교양/다큐 부문 대상작을 선보인 ‘강소(強小)’ 채널 CBS TV의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자리였다. [4]



“누군가가 ‘기독교와 3·1운동’을 물어보면 이 다큐를 보게 하라”

3·1운동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

<루터 로드>에 이어 준비되는 특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연출 : 반태경) 역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100년 전 기독교 독립 운동가들을 소개하며, 기독교가 다시 한 번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국내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기독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기

본. 다큐의 시선은 제목 그대로 ‘북간도’로 향한다. 3·1운동 이후 최대 만세 운동이었던 3·13 만세 운동, 그리고 항일 무장 투쟁을 가능케 한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 독립 운동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할 예정이다. 젊은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가 다큐의 프리젠틀러를 맡아 국내외 곳곳을 누

비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며, 북간도의 마지막 후예인 문동환 목사(98세)도 비중있는 역할로 등장한다.

역사적 과제 앞에서 종교/종교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갔던 (북간도)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의 재조명은, 바닥까지 신뢰가 떨어진 한국교회 공공성/신뢰도 회복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루터 로드>에 이어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공공기획-다양성 강화 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한 <북간도의 십자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초 방송될 예정이다. [4]



“영화로 복음을 전합니다”

CBS, 기독교 영화 총 망라하는 온라인 사이트 <CBS시네마> 론칭

영화로 복음을 전하는 CBS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기독교 영화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영화 전문사이트 [CBS 시네마] (www.cbscinema.com)를 오픈했다.



국내 최초 기독교 영화전문사이트 구축! 언제, 어디서나 기독교 영화 마음껏 볼 수 있다!

그간 CBS는 다양한 기독교 영화를 수입, 배급, 제작하며 척박한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왔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영화로 극장 문화를 선도하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지 2년, <프리덤> 10만 관객 돌파, <예수는 역사다> 17만 관객 동원 등의 의미 있는 성적표를 받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견고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기독교 영화가 극장에 오랫동안 상영되기 어려운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관객 입장에서 기독교 영화를 원하는 시간대에 관람하기란 쉽지 않다. 그마저도 영화관이 없는 몇몇 지역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

[CBS 시네마]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기독교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는 물론 모바일 환경에서도 관람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

[CBS 시네마]는 국내외 기독교 영화를 총 망라하는 기독교영화 전문사이트를 목표로 한다. CBS가 수입, 배급, 제작한 영화 <프리덤>, <레터스 투 갓>, <순종>, <실버벨>, <위대한 임무>, <예수는 역사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등을 중심으로 우수 기독교 영화를 엄선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패밀리 프렌들리(Family-Friendly)영화 및 휴먼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믿고 볼 수 있는 영화사이트 [CBS 시네마]에서는 편당 3,000원의 이용료로 최대 7일까지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한 편을 구매하여 볼 때마다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는 쿠폰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용권 선물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신자에게 기독교 영화를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CBS가 직접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CBS 시네마]는 앞으로 기독교계는 물론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문의 : CBS 시네마국 02)2650-7963 / 7353

7월 19일
개봉

(완결판) 신은 죽지 않았다3:어둠 속의 빛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답을 볼 수 있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시리즈는 그동안 2번의 제작으로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영화다. 그동안의 기독교영화들은 대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믿음의 간증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신은 죽지 않았다>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긴박감 넘치는 영상을 통해 정확히 증거한 기독교 영화의 마스터피스로 손꼽힌다.

특히 <신은 죽지 않았다>는 대학과 대학 내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 젊은 세대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에 촌철살인과 같은 답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혼란 속에 있는 초신자들이나, 예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들도 영화 속 긴장감 넘치는 대결구도와 정확한 진리의 선포를 통해 “예수는 살아계시다”라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신은 죽지 않았다>시리즈의 모든 은혜를 집약시킨 결정판이 바로 CBS시네마가 2018년에 선보일 <신은 죽지 않았다: 어둠속의 빛>이다. 시리즈 전반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사회의 핍박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주제를 가장 강력하고 명확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7월 19일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CCM의 역사와 미래를 노래한 대회! 제28회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레이드백’ 대상



지난해 12월 8일 백석대학교 백석홀(천안)에서는 대한민국 CCM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제28회 CBS <크리스천뮤직페스티벌>이 CCM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펼쳐졌다. CBS의 인터넷라디오 JOY4U에서 한차례 공개방송을 경험한 TOP10은 본선을 위해 심심껏 준비한 창작곡들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선보였고, 많은 응원단들이 열띤 응원을 펼쳐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무대를 연출했다.

길건, 손승연 등 가창력 뛰어난 크리스천 가수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찬양의 향연에 열기를 더했고, 송정미, 강명식, 조수아, 유은성 등 선배사역자들과 TOP10이 함께 준비한 피날레곡 ‘서로 사랑하라’가 대미를 장식하며 ‘하나된 열정’으로 주 찬양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대상은 사역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뚝친 4인조 남성보컬팀 ‘레이드백’이

수상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수상소감을 밝혔고, 금상은 ‘오진 예수’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CPR이 ‘이거 실화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신선한 곡으로, 은상은 ‘영원한 샘물’을 노래한 장유경이, 동상은 4인조 여성보컬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인 ‘리얼제이’가 수상했다.

CBS의 크리스천음악방송 JOY4U가 주는 JOY4U상은 아름다운 목소리의 고수연이, 음반제작의 부상이 주어지는 인피니티상은 히즈 스토리에게 돌아갔다.

백석대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은 추위마저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물리치며 찬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고, 올해 하반기에 열리게 될 제29회 대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 박지현]

문의전화: 02) 2650-7930

제7회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 본선 2018년 6월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



문화 선교의 도구로 사랑받고 있는 악기 ‘색소폰’ 연주자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경연을 펼치는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가 올해 제7회를 맞

이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색소폰 동호회와 대학 전공자가 늘고 있는 요즘 해를 거듭하며 여러 실력자들을 배출해온 CBS의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는 색소폰 연주자라면 꼭 한 번 도전하고 싶은 경연의 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1일 대전과 4월 28일 서울에서 두 차례의 예선이 있었으며, 특히 올해는 본선에 진출한 열 팀이 국내 기독교성지에서 함께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색소폰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예선 참여 및 본선 관람에 함께할 수 있다. [사진: 박지현]

{제7회 엘프와 함께하는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
본선대회 일정: 2018년 6월 21일 (목) 저녁 7시, 서울 영등포아트홀}

경남CBS

신천지 바로알자 신천지 아웃 세미나



경남CBS와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바로알자 신천지 아웃(Q&A) 세미나’가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창원 가음정교회에

서 열렸습니다.

약 3백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 2부 세미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참여한 경남CBS본부장 윤기화 장로는 CBS-TV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관련 소송 및 판결내용을 설명하고, 이어 前 신천지 교육강사로 활동한 지명한 씨는 성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신천지의 실체, 이단 대처를 위한 예방법을 전했습니다.

지 강사는 “이단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차원의 예방이 중요하며,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공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이단 세미나를 열고, 이단 상담소를 마련하는 일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박지현]

광주CBS

광주CBS, 음악FM 시청자위원회 개설



2018년 목표...고품격 음악 방송 준비 총력

광주CBS(본부장 김진오)는 3월 21일, 광주CBS 공개홀에서 음악FM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CBS는 올해 음악FM 개국을 앞두고 문화, 학계, 재계, 법조, 의료 등 각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방송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 12명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연 것.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정아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추대했다. 김형순 위원장은

“CBS의 발전과 음악FM 수요에 맞는 좋은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아 부위원장은 “방송을 통해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기쁘고 열심히 맡은 역할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회칙 인준, 음악FM 설립 추진 상황 및 운영 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CBS는 CBS 음악FM이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청취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가정

지역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일원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라디오 청취자의 라디오 청취 권리를 보장하고 매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음악FM 개국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CBS 김진오 본부장은 “음악FM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맑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방송이 되길 바란다”며 “화합과 소통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시청자 위원들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광주CBS 음악FM 시청자위원회 명단 (11명, 가나다 순)

▲김성수 광주광역시 오페라단 운영실장 ▲김성훈 광주광역시 음악협회 회장 ▲김원준 가수 ▲김정아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김형순 해양도시가스 사장 ▲박선희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겸 광주 민언련 대표 ▲박승일 변호사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겸 광주전남주택건설협회장 ▲송영란 광주가야금연주단장 ▲양태영 태영21병원장 ▲임운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이사 ▲광주CBS 김진오 본부장 [사진: 박지현]

대전CBS

대전CBS와 함께하는 CCM 음악회



대전CBS는 지난 1월 14일, 대전 천성감리교회(윤백진 담임목사)에서 CCM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판소리 신동 고한돌, 최인혁 전도사, 동방현주가 출연해 하나

님을 찬양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명창 박동진 전수생으로 유명한 고한돌 군은 성경판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대목을 노래해 교인들에게 감

동을 전했고, 최인혁 전도사의 열정 충만한 찬양은 참석자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장관을 보여줬다.

동방현주의 깊은 감동의 목소리가 천성감리교회 대성전을 울리며 CCM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대전CBS는 5월에도 이 같은 CCM 음악회를 2차례 계획하고 있다. 5월 6일(주일) 대전영락교회(김등모 담임목사)와 5월 13일(주일) 천안하늘샘교회(이성수 담임목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전CBS는 CCM 음악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사진: 박지현]

대구CBS

감동과 힐링의 시간... 대구CBS 개국 59주년 기념 음악회 성료



‘음악FM 개국 감사와 방송 60주년 비전선포를 위한 대구CBS 창립기념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 민영방송으로 지난 1959년 출범한 대구CBS가 개국 59주년을 맞아 지난 4월 3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대공연장에서 개국 59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1부 대중가요와 2부 클래식 공연으

로 2시간 10여 분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와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오페라하우스를 가득 메운 1천300여 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1부에는 음악FM 대표 DJ 박승화가 속한 유리상자와 한동준을 비롯해 김조한, 노사연이 차례로 출연해 자신들의 인기곡과 찬송가를 노래해 관객들

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2부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영미와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강혜정이 ‘시간에 기대어’, ‘그 흠먼지’, ‘강 건너 봄이 오면’ 등 인기 가곡과 복음성가를 연주했다.

특히故 신상우 씨가 김영미 교수에게 헌정한 복음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앙코르곡으로 세 명의 성악가가 100여 명의 CBS 여성·혼성합창단과 함께 연주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관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해 음악FM 개국을 기념하고 내년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선포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대구CBS의 방송선교사와 애청자를 비롯해 대구지역 주요 교계 인사와 기관장, 정치·경제계 인사 1천300여 명이 함께 했다. [사진]

부산CBS

부산CBS “부활절 연합예배” 주관방송사로 중계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주일을 맞아 4월 1일,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 부산시민공원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부활 생명, 이 땅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2시 20부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드려진 ‘2018부산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부산CBS가 주관방송사로 참여한 가운데 5만여명의 교인들이 참석해 부활 신앙이 한국교회에 임하길 기도했다.

이번 연합예배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대표회장 정성훈 목사)와

부산성서화운동본부(본부장 허원구 목사) 공동 주최로 부산의 1,800여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연합예배의 공동대회장은 정성훈(동래중앙교회) 목사와 안용운 목사(온천교회)가 행사준비위원장은 김종후 목사(부곡교회)가 맡았다.

이날 예배는 김종후 목사의 사회로 정성훈 목사의 대회사와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강사로 나선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는 “부산의 교회들이 부활의 정신으로 하나로 모였다”며 ‘위대한 반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다. 이규현 목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시기에 도 죽은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부활 정신으로 다시 생명을 잃은 교회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동근&헤리티지 찬양과 동래중앙교회 어린이 난타, 고신대 태권도 선교단 시범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도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CBS TV를 통해 녹화 중계됐으며, ‘CBS 라디오’ 표준 FM 102.9MHz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사진]

강원영동CBS

강원영동CBS JOY4U콘서트 삼척에서 열려



강원영동CBS(김동혁 본부장)는 4월 18일 저녁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JOY4U콘서트를 개최했다.

삼척지역 복음화와 연합을 위해 가진 이날 JOY4U콘서트에는 삼척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CBS JOY4U의 사역자 최인혁 전도사, 유은성 전도사, 조수아가 함께 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또 강원영동CBS의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방송선교사 결단의 순서도 이어졌다. 삼척제일감리교회 박신진 담임목사는 “특별히 교회창립106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강원영동CBS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

울산CBS

아름다운교회 “JOY4U CCM콘서트”



울산CBS는 지난 4월 11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울산중앙지방회와 함께 아름다운교회(안경수목사)에서 “JOY4U CCM콘서트”를 마련했다.

JOY4U 진행자 최인혁전도사와 송정미사모가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으며, 복화술사 안재우소장이 출연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콘서트에 은혜가 더 해졌다. 성도들은 감사와 함께 위로를 받으며 CBS 방송선교사로 동참하는 헌신의 시간이 됐다. 울산지역 복음화를 이끄는 JOY4U콘서트는 4월 21일 평산교회(강진삼목사)와 5월 25일 남울주 기독교연합회와 연합하여 온양교회(김형민목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제주CBS

창립 17주년을 맞아



제주CBS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먼저, 5월 24일(목) 오후 1시 제주국제대학교에서 <3인3색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3인3색 토크콘서트’는 올해 다섯 번째로 청년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줄 3명의 강사를 초청해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단 세력들로부터 제주지역 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변상욱 CBS대기자(前 CBS신천지 특별대책팀장)를 강사로 초청해 <이단 사이비 OUT! 연합예배>를 갖는다.

이번 집회는 5월23일(수)과 24일(목) 이틀에 걸쳐 제주영락교회와 서귀포교회에서 개최되며 신천지뿐만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JMS, 박옥수 구원파 등 이단 사이비의 실체와 반사회성을 낱낱이 규명한다.

이와 함께 제주CBS는 사육이전을 앞두고 <JOY4U콘서트>와 사육이전 모금생방송을 개최한다.

<JOY4U 콘서트>는 최인혁전도사와 송정미사모의 출연으로 5월30일(수) 저녁 7시30분 순복음제주도중앙교회에서, 6월1일(금) 저녁 7시30분 법환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특히, <이단 사이비 OUT! 연합예배>와 <JOY4U 콘서트>는 제주CBS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제주지역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한편, 사육이전 모금생방송은 5월 31일(목)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4시까지 박혜진 아나운서와 최인혁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사진]

포항CBS

포항CBS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CCM콘서트



포항CBS는 2월 27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CCM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유리상자 이세준과 기타

리스트 함춘호가 함께하는 ‘줄라이 프로젝트’, CCM 여성 2인조, ‘홀리원’과 혼성보컬 ‘뉴클리어스’, 포항을 대표하는 혼성 5인조 ‘데이빗밴드’가 출연하여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지진피해 등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포항CBS는 매년 CCM콘서트를 개최하여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 왔으며 방송선교사를 초청하여 함께 찬양의 기쁨을 나누었다. [사진]

CBS
Media Group™

좋은날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뉴 메이플라워호

성경의 땅을 더 깊고 더 넓게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음세대 비전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2018 CBS

크루즈 성지순례

‘나의 이스라엘을 찾아서’



이스라엘/그리스/터키
최대 12일 **455**만원부터
10월 22일 출발(11박12일)

문의 02)2188-4171~2

<http://www.cbscruise.com>

인터넷 검색창에 **CBS 크루즈** 를 입력하세요

